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엿보다

내일 여균동 감독과 순창 청소년들의 단편영화 상영회 열려

순창 청소년들과 여균동 감독이 만든 단편영화 3편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순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작은영화관) 1관에서 상영회를 갖는다.

편당 10~15분 정도로 총 3편이 유니버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에서는 사랑과 관심 부족으로 다른 존재에게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을 담은 '나 어찌?'를 비롯해 고양이 의 시선으로 바라본 청소년 꿈과 엄마의 꿈의 차이를 담은 '고양이의 꿈'과 '쓴맛' 등 총 3편이다.

지난 10일 촬영진을 비롯, 영상 관계자들은 시연회를 갖고 그날 나온 보완점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거쳤다. 내일 정규 상영회전까지 영상편집을 통해 최종 완성본을 만들어 상영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단편영화 상영회는 순창군 지원으로 결성된 청소년 영화캠프인 '우리 영화 만들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관내 청소년 11명을 선발해 각 분야 전문 촬영팀을

초청, 적극적인 지도로 이번 단편영화를 완성했다. 무더위가 시작된 7월부터 2주간에 걸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참여 학생들 모두 열의를 다해 참여하며 이번 영화캠프를 무사히 마쳤다.

이번 단편영화 제작은 황숙주 순창군수의 진폭적인 지원으로 여 감독과 순창 청소년의 만남이 성사됐다. 특히 순창군의 따뜻한 환대에 여 감독이 귀농하고 싶다는 표현을 했다는 후문이다.

황 군수는 지난 6일 여 감독과의 사전 인터뷰 영상 촬영을 비롯해 학생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 등 이번 영화캠프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0일 시연회 당시에도 참석해 영화캠프 참석 학생들에게 수료증도 직접 수여한 바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영화가 종합예술인 만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술분야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캠프를 계기로 순창에서도 한국을 대표



하는 영화인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수탈의 아픔, 잊지 않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특별전 '수탈의 기억 군산' 각광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특별전 '수탈의 기억 군산'이 재조명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전 '수탈의 기억 군산'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에는 하루 평균 2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등 근대문화 도시 군산의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공출명령서, 군산미계요람 등 일제강점기 당시 군산의 쌀 수탈과 관련된 자료를 비롯해 개항부터 1930년대까지 군산항 전경이 담긴 지도, 군산개항사 등 군산의 사회상이 담긴 300여점의 희귀

자료와 만선시할 등 군산의 역사가 담겨있는 영상자료가 전시되고 있어 군산의 근대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산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의 관람을 통해 내선일체 정책에 따른 문화·경제적 강제 수탈의 아픔과 일본 제국주의에 강력히 저항한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곳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강점기 군산 역사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관이며, 매일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부안 포스댄스컴퍼니,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선정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포스댄스컴퍼니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실시한 2019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75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우수성·수행역량·기대효과 등 사업수행 관점으로 서류심사와 인터뷰 및 발표를 거쳐 포스댄스컴퍼니 외 2팀이 선정되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국가 간 문화예술 국제교류 네트워크 지원을 목적으로 하

는 공모사업으로, 포스댄스컴퍼니는 확보한 예산으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하여 마스카라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부안을 널리 알리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안을 주제로 하는 해외 공연을 통해 부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부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립국악단의 8월 상설공연 '정읍풍류 락(樂)'이 내일 밤 7시 30분에 내장산위터파크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잠 못드는 여름밤, 신명나는 국악과 시원한 음악분수를 즐겨요”

정읍시립국악단, 내일 내장산위터파크서 상설공연 '정읍풍류 락' 개최

시립국악단의 8월 상설공연 '정읍풍류 락(樂)'이 내일 밤 7시 30분에 내장산위터파크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시립국악단은 '심청가 中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경쾌하고 신명 나는 장과 배우 연기가 돋보이는 단막극으로 선보인다.

또 정읍을 소재로 창작한 '정읍사 월명가

등도 공연된다. 정읍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신명 나는 국악연주, 아름다운 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명나는 국악공연과 함께 더위를 날려버릴 음악분수도 준비돼 있다"며 "가족, 지인들과 함께 국악의 고장 정읍을 맘

껏 느끼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립국악단은 매일 다채로운 상설·기획 국악공연을 시민에게 무료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창작 소리극 '정읍사는 착한 여인'을 공연해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자세한 공연사항은 문화예술사업소 예술진흥팀(☎ 063-539-6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